

여성단체 “의뢰인 추행 국선변호인, 피해자 개인정보 열람”

“형량 낮추기 위해 2차가해, 엄벌 촉구해야”

여성 의뢰인 대상 범행 재연...추행한 혐의

여성 의뢰인을 강제 추행한 국선 변호인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0일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해당 변호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급된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가해자는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다른 사건 기록과 개인정보 열람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국선변호인 신분으로 입수한 정보를 피해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저지른 또 다른 폭력이다. 재판부가 2차 가해 행동에 동참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가해자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일기를 제출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으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알아내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형식만 갖춘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당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국선변호인은 지난해 6월15일과 8월3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7월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당 국선변호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유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당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당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당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당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합당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을 강제추행한 국선변호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주회 측 추산 조합원 400여 명(경찰 추산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불평등 사회양극화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며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적극 나서라”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교육공무직 현원

4333명(비조합원 포함) 중 학교급식·돌봄노동자 등 조합원 487명(11.2%)이 참여했다.

급식을 운영하는 전체 학교 수 253개교 중 급식 정상 운영 학교는 213개(84%), 빵·우유, 도시락 지참 등 대체급식에 들어간 학교는 40개교로 나타났다.

돌봄 운영학교 149개교 중 파업참가 학교 수는 17개교(11.4%)이며, 전체돌봄교실 299개 중 미운영 교실은 10개(3%)였다.

조합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시교육청사 곳곳을 돌며 ‘비정규직 철폐, 세상을 바꾸자’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했다.

서선욱기자



폭발물 의심 물품 탐색 및 현장통제

20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우청사에서 열린 관·경 대테러 합동훈련에서 경찰특공대, 청원경찰 등이 폭발물 의심 물품 탐색 및 현장통제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정부청사 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 10명 중 7명은 30세 이하

교통안전공단, 5년간 렌터카 사고 발생현황 통계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의 70%가 30세 이하 운전자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13.9%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비율이 39.1%, 사망자 비율은 56.5%로 가장 높았다. 21~30세 운전자는 사고비율 25.8%, 사망자 비율 21.7%로 그 뒤를 이었다.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연평균 5.9%, 사망자 수는 11.4% 늘었다. 21~30세 운전자 사고비율이 32.2%, 사망자 비율은 53.0%로 심각한 수준이다. 20세 이하 사망자 비율은 14.5%를 차지해 67.5%는 30세 이하 운전자였다.

이슬비기자

SPC 빵 운송 파업

노선 조정 협상 타결

제과프랜차이즈 업체인 SPC그룹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했던 파리바게뜨 광주지역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 47일 만에 사측과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SPC지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SPC 측(대표 운수사)과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관련 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광주본부 노조 조합원 35명이 물류 운송 업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5일부터 광주와 동맹 파업에 나선 전국 물류센터 10곳 운수사 조합원들도 사업장으로 돌아왔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운송 용역 계약 해지 철폐 뒤 노조원 원직 복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철회·면제 또는 추후 청구 금지 ▲증차 차량 2대 노선 조정과 운영 방식 논의의 뒤 확정 등이다.

합의안에는 다른 지역 노조의 요구 사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원직 복귀는 23일 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증차 차량 2대 노선 조정은 25일까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SPC 그룹이 노동 조건 개선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으나 SPC 측은 물류 계열사와 위·수탁 운수 업체 간의 문제로 그룹(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